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② 남북, 불꽃 튀는 신경전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와카미야 요시부미 전 아사히신문 주필

[칼럼] '지' ③ 스승과

April 03, 2013

좋아요 2

서울에 온 뒤로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플랫폼 여기저기 음료자판기에 석이듯 비슷한 모양의 '구호용품 보관함' 이 놓여 있는 것을 깨달았다. 유리케이스 안에 진열된 용품은 방독면인데, 자세히 보면 2종류가 있고 한글로 '화재용' 과 '화생방용' 이라 적혀 있다.

화재는 '火災' (화재)라고 금방 알았지만 '화생방' 은 얼른 짐작이 가지 않았다. 설명을 읽어 보니 '화' 는 화학, '생' 은 생물, '방' 은 방사능으로, 말하자면 화학·생물병기와 방사능에 대비한 '화생방' (化生放)용 방독면이었다. 그렇구나. 방사능은 극단적인 위협으로, 오히려 이곳에서는 북에서 잠입한 이들이 맹독이나 묘한 세균을 퍼뜨리거나 수돗물에 타면 어찌 될지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세계의 첨단을 걷는 IT 도시가 된 서울인 만큼 전기와 전파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런 무렵에 놀란 것이, 북한이 행한 것으로 보이는 사이버테러였다. 3월 20일, KBS 등 3개 대형방송국과 2개 은행이 공격당해 컴퓨터가 일제히 다운된 것. 방송에 영향은 없었지만 방어시스템이 간단히 뚫렸다는 충격은 컸다. 대형방송국 중 유일하게 무사했던 SBS의 지인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우리 방송국 시스템이 우수해선지, 그냥 표적이 아니었던 것뿐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 라며 고개를 저었다.

공격당한 은행은 모든 지점의 업무와 현금지급기가 완전히 마비되는 바람에 난리였다. 방송국이든 은행이든 유사시에 기능하지 않으면 큰일이니만큼 "이번 테러가 '예행연습' 이라면 무서운 일" 이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렇다 쳐도 내가 서울에 온 3월 초순부터 신문과 TV에 북한의 도발을 다룬 뉴스가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다.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대로 연일 전선부대를 고무하고 다니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연이어 "전면전 준비완료" 등의 발언을 하고 있다. 3월 29일에는 일부러 한밤중인 자정 무렵에 군 최고수뇌부를 긴급소집해 작전회의를 여는가 하면, 전략미사일부대에 '사격대기' 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는 미국 본토까지 표적에 넣었는데, 30일 아침에는 기어이 "남북관계가 전시상태에 돌입했다" 며 기세를 더해갔다.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몸소 뿌린 씨앗임에도, 한·미 양국이 대규모 공동훈련에 이어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에서도 합의하거나, 미군이 B2스텔스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하는 것을 개전준비라 비난하는 것



플랫폼에 설치된 구호용품 보관함



아사히 eBook
영토마찰은 이렇게 일아
동북아시아, 미래로 가
7월말까지 50% 할인 자세히 보

More AAA

Facebook
Twitter

이다. 30일에 있었던 선언에서는 “원수님의 중대결심은 미국과 괴뢰패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자 정의의 결단”, “김정은 시대는 모든 게 다르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라며 용맹하기 그지없었다.

그리고 보니 최근 북한에서 만든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이라는 4분여짜리 영상이 유튜브에 올랐다. 병기 이름이 속속 나오는 빠른 어조의 나레이션을 나는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지만, 포격의 격렬함만은 영상만으로도 잘 알 수 있었다. 고층빌딩이 늘어선 서울 상공에 전투기가 날고 헬기에서 낙하산부대가 내려온다. 탱크부대도 줄지어 진군한다. 마지막에는 풀죽은 서울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북한 지도자는 자신들이 그런 식으로 당하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닐까.

서로 폭탄만 쏘지 않았지, 지금 남북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것은 격한 신경전임에 틀림없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 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1970년부터 아사히신문 기자로 활동. 정치부장, 논설주간 등을 거쳐 주필을 역임했으며 2013년 1월에 퇴직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 (故권오기 씨와의 대담) 등이 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구호용품 보관함](#) [남북관계](#) [사이버테러](#)

1



좋아요 2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류는 ‘다른 세계’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나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든 까, 신촌에서의 하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나는 자취가 서툰데 외식만?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 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⑧ 대학 생들의 지적 교류, 한관계에 희망 보

July 05, 2013

여성스러움이 감도는 디자인 분홍 재킷, 빛깔이 고운 노랑 선을 흠어 태극기를 연상하 움을 자아내는 보라 재킷... 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정치’로 중국을 매료했다고 다.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⑦강연, 원, 공연. 세 가지

